

해외출장복명서

출장자	소속	직위	성명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평등정책확산전략실 국제개발협력센터	부연구위원	조혜승
출장기간	2018. 3. 11 (일) – 2018. 3. 18 (일)		
출장지	미국 뉴욕		
출장목적	제 62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 참석		
경비부담	본원부담 (약 4,137,200 만원)		
주최기관	UN, 외교부		
회의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 회기 우선주제인 ‘농촌 여성·여아의 성평등 및 역량강화 달성에 있어서의 도전과 기회’에 대한 각 국의 현황과 도전과제 논의 ○ 금 회기의 검토주제인 ‘여성의 언론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참여와 접근’에 대한 각국의 이행현황 공유 ○ 북경행동강령 이행 가속화 및 2020년까지 가시적 성과 달성을 위한 각국의 성과와 우수사례 공유 ○ SDGs 달성과 관련하여 농촌여성의 토지 접근권 및 보유권 보장에 대한 패널 토의 ○ 성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 성과 측정을 위한 혁신적인 데이터 접근법에 대한 전문가 토의 		
국제교류 네트워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유엔대표부 인권팀(이주일 참사관, 황유실 1등서기관, 김흔진 1등서기관)과 향후 국제 젠더이슈 협의 가능성 논의 ○ 여성가족부(최성지 정책기획관, 이진희 국제협력담당관실 사무관) 및 UN Women(여성가족부 파견 젠더 담당 채명숙 과장)과 본원의 향후 협력 논의 		

상세한 업무처리 및 세부내용은 별도 붙임

2018. 4. 3

출 장 복 명 자: 조혜승 부연구위원

해외 출장 복명서

제 62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2018. 3. 11 – 3. 18

미국, 뉴욕

2018. 4. 3

보고자: 조혜승

성평등정책확산전략실 국제개발협력센터 부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출장 개요

□ 회의명: 제62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 (The 62nd Session of the UN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 일정 및 출장자

- 기간: 2018. 3. 11 (일) - 3. 18 (일) (6박 8일)
- 장소: 미국 뉴욕 유엔본부
- 출장자: 조혜승 부연구위원 (성평등정책확산전략실 국제개발협력센터)

일 자	내 용
3월 11일 (일)	미국 뉴욕 JFK 도착 (KE 81 / 10:05 출발 11:00 도착)
3월 12일 (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SW 세션 참가 (개회식 및 장관급 원탁회의) • 주유엔대표부 및 여성가족부 대표단과의 정책 네트워킹
3월 13일 (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SW 세션 참가 (일반토의 및 장관급 상호대화) • 여성가족부 대표단과의 활동보고 및 모니터링 회의
3월 14일 (수)	• CSW 세션 참가 (일반토의)
3월 15일 (목)	• CSW 세션 참가 (일반토의)
3월 16일 (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SW 세션 참가 (전문가 패널 토의) • 주유엔대표부 인권팀과 정책협력 네트워킹
3월 17일 (토)	귀국 (KE 86 / 00시 50분 뉴욕 JFK 출발)
3월 18일 (일)	04시 05분 인천도착

□ 본원 참가목적

- 정부대표단의 일원으로 주요의제 정부자문 및 각국 동향 파악
- 유엔여성지위위원회참석을 통한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
- 여성이슈관련 국제사회 동향 파악 및 각국 참가자와의 국제네트워킹 구축

□ 주요역할

- CSW 회의 첫째 주(3. 12(월) - 3. 16 (금))의 개회식, 고위급 일반토의, 장관급 원탁회의, 장관급 상호 대화, 전문가 패널토의에 참석하여, 주요 인사

및 각국의 발언요지를 요약하여 외교부 전문의 초안을 작성함.

- 전문의 초안은 2차례에 걸쳐 외교부 유엔대표부 1등서기관과 여성가족부 국제담당관에게 송부함.

□ 회의사진



□ 일시 및 장소

- 총 회의기간: 18. 3. 12(월) ~ 3. 23(금)
(본원 참석기간: 2018. 3. 12 (월) – 3. 16 (금))
- 장소: 미국, 뉴욕, 유엔 본부

□ 주요의제

우선의제 (Priority Theme)	농촌여성·여아의 성평등 및 역량강화 달성에 있어서 도전과 기회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in achieving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rural women and girls)
검토의제* (Review Theme)	여성의 언론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참여와 접근 (Participation in and access of women to the media,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and their impact on and use as an instrument for the advancement and empowerment of women) * 제47차 회의 합의 결론 관련

□ 배경 및 목적

- 2018년도 제 62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의 우선주제(priority theme)는 ‘농촌 여성·여아의 성평등 및 역량강화 달성에 있어서의 도전과 기회’로 북경행동강령(Beijing Declaration and Platform for Action)과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달성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의제임. 특히 본 의제는 SDG 2(기아 종식, 식량안보와 영양 개선 달성 및 지속가능한 농업 진흥)와 SDG 5(양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소녀의 권한 강화)와 밀접하게 연계됨.
- 또한 본 회의에서는 2003년 제 47차 회기에서 합의결론(agreed conclusion)으로 채택된 의제인 “여성의 언론·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참여와 접근”의 이행을 검토함. 2003년과 2005년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된 정보화 사회에 대한 세계정상회의(the 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를 통해 국제사회는 양성평등 증진에 있어서 미디어와 ICT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음. 본 의제 역시 SDGs의 목표와 연계되며 특히 5.b ‘여성의 권한 강화를 위하여 핵심기술,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을 강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매년 유엔여성지위위원회에 전문가를 파견해왔으며, 금년에도 주제에 맞추어 본원 주제 전문가가 정부 대표단 일원으로 참가함.

□ 회의 일정

일 시		구 분
3.12 (월)	10:00 – 1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회식 • 일반토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주제) 농촌 여성·여아의 성평등 및 역량강화 달성에 있어서의 도전과 기회
	15:00 – 1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관급 원탁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그룹으로 나누어 진행(2개중 1개 주제 선택) a) 농촌여성·여아 역량강화(교육, 사회인프라, 기술에 대한 접근 포함) b) 농촌여성·여아에 대한 폭력 방지
3.13 (화)	10:00 – 1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토의 (계속) • 장관급 상호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농촌 여성·여아의 성평등 및 역량강화 달성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
	15:00 – 1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토의 (계속) • 상호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북경행동강령 이행 촉진 및 2020년까지 가시적 결과도출
3.14 (수)	10:00 – 1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토의 (계속) • 상호대화 : 이전 주제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여성의 언론·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참여와 접근
	15:00 – 1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대화 : 이전 주제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여성의 언론·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참여와 접근
3.15 (목)	10:00 – 1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토의 (계속) • 상호대화 : 이전 주제 검토(계속)
	15:00 – 1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토의 (계속) • 비공식 협의 : 합의 결론
3.16 (금)	10:00 – 1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패널토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주제) 농촌 여성·여아의 성평등 및 역량강화 달성에 있어서의 도전과 기회
	15:00 – 1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패널토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주제) 농촌 여성·여아의 성평등 및 역량강화 달성에 있어서의 도전과 기회 • 비공식 협의 : 합의 결론

III

세부논의 내용 요약

제 1일 차 (2018년 3월 12일, 월)

- 개회식
- 장관급 원탁회의
- 주유엔대표부 및 여성가족부 대표단과의 정책 네트워킹

1. 개회식 주요인사 발언 요지

□ 일시 및 장소: 2018. 3. 12(월), 10:00 -13:00, 유엔본부 본회의장

가. Geraldine Byrne Nason 제62차 여성지위위원회 의장(주유엔 아일랜드대사)

○ 이번 회의 주제인 ‘농촌 여성과 여아의 성평등 및 역량강화’는 북경행동강령 이행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이슈인 바, 농촌 여성 및 여아가 겪고 있는 기아, 빈곤, 교육·직업에 대한 접근 제한 등의 문제에 대한 세계적 현황을 공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여 최종 합의문을 도출하는 의미있는 회의가 될 것임.

○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결과물 도출을 위한 회원국의 협조를 요청함.

나. Antonio Guterres UN 사무총장

○ 성 격차와 여성에 대한 선입견은 다양한 분야에서 존재함. 여성의 STEM 분야 진출이 30% 미만인 점 등에서 알 수 있듯이 고정 성역할에서 기인하는 직종분리 현상이 심각하며,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이 다방면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성의 고위직 비율은 아직까지 저조한 상황임.

○ 따라서 여성의 성 격차를 해소하고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여성들의 의사결정 참여를 제고하고 사회적 지지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한 파트너십이 매우 중요한 바 UN은 국제사회와 함께 난민, 장애여성 등의 다양한 여성 집단이 소외되지 않도록(no one left behind) 지원할 예정임.

○ UN 차원에서는 2021년까지 고위직에 대해, 2028까지 모든 직위에 대한 성 균형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노력해나가고 있으며, 여성의 역량강화와 성평등을 위해 남성의 참여를 촉구함.

다. Marie Chatardova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의장

○ ‘농촌의 여성과 여아의 성평등 및 역량강화’ 주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5

(성평등), 11(지속가능한 도시), 12(지속가능한 생산), 14(해양), 17(파트너십) 등의 목표와 연계되는 바, ECOSOC은 정책 가이드라인(policy guidance)을 통해 체계적으로 SDGs를 지지하고 있음.

- 지속가능한 발전과 회복력을 갖춘 변혁(transformation)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성평등이 매우 중요하며, 농촌 여성의 역량은 농촌과 도시의 동반성장을 고려해야 함. ECOSOC은 성평등을 위한 지지와 노력을 이어갈 것이며, 농촌 여성의 역량 강화 이행 방안에 대한 로드맵을 구축하기 위해 힘쓸 것임.

라. Miroslav Lajcak UN 총회 의장

- 본 회의의 주제인 농촌 여성과 여아 역량강화는 지금까지 국제사회에서 간과되어왔던 주제이나, 농촌의 여성 및 젠더를 고려하지 않고는 성평등을 이룩하기 어려움. 농촌 여성 20% 만이 음용식수(drinking water)에 접근 가능하며, 이들의 문해율도 매우 낮은 수준임.
- 농촌의 여성과 여아를 위한 양성평등 달성과 역량강화는 우리 모두의 번영을 위한 것임을 인지하고, 농촌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꿈과 이상을 현실로 바꾸기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노력을 결집할 필요가 있음.

마. Phumzile Mlambo-Ngcuka UN Women 총재

- 금번 회의의 주제는 아무도 소외되지 않는(leave no one behind)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함. 전 세계의 1/3이 농촌 여성이며 약 4억 명이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이나, 농촌의 여성에 대한 가시성(visibility)은 높지 않은 바, 이들은 무보수 노동을 제공하여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하기도 하며, 소수의 여성만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20%의 여성만이 깨끗한 물에 접근이 가능함.
- 농촌 여성들은 교육 접근성이 낮으며, 폭력에 노출되기 쉬우며, 농촌의 고령 여성 및 원주민 여성, 난민 여성의 경우 차별에 특히 취약한 바, 이들에 대한 인식과 고려가 필요함.
- 이러한 맥락에서 본 회의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변화와 진보를 위한 우수사례 공유는 더 나은 변화와 진보를 이루어 낼 것임. 이제는 성평등의 실현을 위해 국제사회가 행동해야 할 때인 바, 상호 존중을 통한 토론을 통해 농촌 여성에 대한 변화를 만들어 내기를 기대함.

바. Cornelia Richter 국제 농업 개발기금(IFAD) 부총재

- 도시의 여성보다 농촌의 여성이 더 많은 어려움과 차별에 노출되어 있는 바, SDG 5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성에 대한 다양한 법적 장벽 및 교육, 물, 사회보장 시설 등에 대한 접근 제한, 또한 농업정책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포함되도록 농촌 정책에서의 장벽을 없애야 함.

- 여성이 남성에 비해 평균 12시간을 더 일한다는 통계가 있는 바, 인적자원 강화, 디지털 기술의 전파 및 활용을 통해 여성의 노동집약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함. 아울러, 여성의 식량안보를 위한 대중의 인식제고와 데이터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함.

사. Dalia Leinarte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의장

- 젠더기반폭력(Gender-based Violence)은 CEDAW에서 중요한 이슈이며, 농촌 여성의 젠더기반폭력에 대해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음. 또한 농촌 여성의 성과 재생산권(reproductive rights)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구조적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아. Dubravka Simonovic 유엔 여성폭력특별보고관

-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미투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감에 따라 이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젠더 이데올로기(gender ideology)는 여전히 팽배함. 따라서 젠더기반폭력에 대한 목소리를 더욱 높이며 연대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젠더기반폭력 관련 전문가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젠더기반폭력을 철폐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촉구됨.

2. 장관급 원탁회의 (농촌 여성 및 여아의 교육, 인프라 및 기술, 식량 안보 및 영양 접근성 제고)

□ 일시 및 장소: 2018. 3. 12(월), 15:00 - 18:00, 유엔본부 지하 회의장

○ 핵심내용

농촌의 여성과 여아는 인프라, ICT, 기술, 교육, 인터넷 접근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음. 본 장관급 원탁회의에서는 23개국 대표가 농촌 여성과 여아의 교육, 인프라, 기술, 식량안보, 영양 측면에서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우수사례를 공유함. 구체적으로 여성과 여아의 교육접근성, ICT 기술 제공, 식량안보 제고를 위해 1) 각 국의 정부가 그동안 어떠한 기여를 도모했는지, 2) 향후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성에 대해 논의함.

○ 상세내용

가. 한국정부 발언 요지(최성지 여성가족부 정책기획관)

- 우리 정부는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여성과 여아들의 교육

및 직업능력 개발에 있어 차별이 없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는바, 농촌의 대학교육 기회 확대 및 농어촌 주민의 학비부담 완화를 위해 대입에 농어촌 특별전형을 실시하고 장학금 지원 및 학자금 무이자 융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여성농업인의 평생학습 환경 지원을 위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을 통해 전문교육을 제공하고 ‘교육 도우미 사업’ 확대를 통하여 여성의 교육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음.

- 또한, 여성농업인의 농업관련 전문교육 참여율을 2020년까지 30% 이상으로 확대하여 여성농업인이 농업경영에서 남성과 동등한 파트너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 있음.

나. 기타 참여국 발언 요지

- **(기니)** 기니에서는 조혼이 여아들의 교육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인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농촌 여아를 위해 장학금을 지원하여 3000명의 농촌 여아들이 교육을 받았으며, 모든 여아들에게 디지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Tablet을 제공함.
- **(호주)** 농촌의 여성, 특히 농촌 난민과 이민자 지원에 힘쓰고 있는바, 농촌 여성의 디지털 역량제고를 위해 인터넷망 구축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tele program을 구축하여 농촌에서도 휴대폰을 통해 편리하게 의료예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함.
- **(이집트)** 농촌 여성들을 위해 ICT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8,000명의 농촌 여아들이 실험실을 이용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90% 여성들이 핸드폰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도미니카)** 농촌 여성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바, 농촌 여성의 정보 습득 및 비즈니스 플랜 디자인을 지원하여 여성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코트디부아르)** 2015년부터 의무교육을 통해 문해율을 증가시키고 남아와 여아의 교육 성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농촌 여성들을 위해 2012년부터 ‘여성 개발 자금(Women development fund)’을 출범시켜 여성들의 시장진출을 지원하고 있음. 아울러, 보건 분야의 예산을 18% 증가시켰으며, 임신 여성들이 무상돌봄(free care)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계획 중임.
- **(케냐)** 케냐 정부는 초등교육에 ICT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학생들의 디지털 문

해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ICT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여 여아들의 기술능력을 향상하고자 함. 또한, 여아의 중등교육 이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생리대를 제공 및 학교시설 개선을 위해 노력 중임.

- **(앙골라)** 앙골라 농촌 여성의 82% 농업에 종사하는 등 농촌 여성의 경제 기여율이 높으나, 고등교육을 받은 농촌 여성이 거의 없는 등 교육수준이 매우 낮은 상황임. 앙골라 정부는 농촌 여성의 기아와 빈곤을 퇴치하기 위한 컨설팅 프로그램 실시하여 2014년 4,400명이 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함.
- **(스위스)** 스위스 정부는 농업 종사 여성을 국가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체로 보고 있는바, 여성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한 인식제고 프로그램과 휴대폰을 통해 적절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 **(이탈리아)** 이탈리아 정부는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창업을 지원하고 있는바, 이를 위해 약 33백만 유로의 자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에는 농업 여성도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음. 여성 창업자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여성 청년 창업을 장려하고자 함.
- **(라이베리아)** 대부분의 교육시설이 도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라이베리아 정부는 교육의 탈중앙화(decentralization)를 위해 노력 중이며, 2009년에는 여성의 의사결정 참여권을 제고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고, 농촌 여성을 위해서는 ‘National women rural structure’를 출범시켰음. 농촌 여성의 경제적 참여를 지원하고자 자금대출, 리더십교육, 문해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 여아의 교육 중도탈락률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바, 특히 농촌의 교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을 진행 중임.
- **(노르웨이)** 여아에 대한 양질의 교육을 위해 스마트 폰을 통한 디지털 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여아들의 디지털 문해능력(digital literacy)을 제고하고자 ‘Global digital library’를 구축함.
- **(포르투갈)** 농촌 여아들을 위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며, 특히 여성들의 인식제고와 법적 조언(Legal advice)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여성의 역량강화를 도모함.
- **(중국)** 농촌 임신부를 위한 지원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9년부

터는 농업 여성 기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이크로크레딧을 제공하고 있는바, 약 6백만 여성들이 수혜를 받았고, 농촌의 응용식수지원을 위한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 **(가나)** 가나에는 십대 임신과 조혼, 이민 등의 문제가 심각하며, 이로 인해 여아들이 교육에서 중도 탈락하는 경우가 잦은바, 여아 교육 장려를 위해 무상 기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농촌 여아들을 대상으로 유니폼과 생리대를 제공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또한 모든 학생들에게 하나의 컴퓨터를 제공하는 정책(One laptop for child)을 통해 남아와 여아의 ICT 역량을 제고하고자 함.
- **(우루과이)** 모든 학생에게 컴퓨터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아동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학교에서 인터넷 접근이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오지에는 태양열을 통한 에너지 보급을 시행 중임.
- **(차드)** 농촌 여아의 조혼 방지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바, 차드 여성부는 '2016-2030 health care plan'을 통해 양질의 보건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농촌 여성의 역량강화 및 식량안보를 위해 농기계를 제공하고 있음.
- **(짐바브웨)** 여아들이 STEM 분야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농촌의 보건시설 확충을 위해 클리닉을 설치하여, 농촌 여성과 여아의 보건시설 이용의 접근을 용이하게 함.
- **(인도네시아)** 농촌 여성을 위해 'Smart program'과 'Healthy program'을 출범하여 농촌의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 교육과 건강을 지원중임.

제 2일 차 (2018년 3월 13일, 화)

- 일반토의
- 고위급 상호대화
- 여성가족부 대표단과의 활동보고 및 모니터링 회의

1. 일반토의

□ 일시 및 장소: 2018. 3. 13(화), 10:00 -13:00, 유엔본부 본회의장

주요 그룹 발언요지

- (Group of 77 + 중국(이집트)) 농촌 여성들에 대한 경제적 차별이 매우 심각한 수준인바, 농촌 여성들은 교육과 사회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 보건, 토지 소유권, 의사결정권 등에 불평등이 존재함. 특히 개발도상국의 농촌 여성과 여아는 가뭄, 홍수, 해안침식 등의 자연재해 및 폭력과 식량안보에도 취약함.
 - 이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이주민 보호, 농촌여성의 차별과 폭력 철폐를 위한 실제적인 대처가 강조되어야 하는바, 이를 위해 남-남, 북-남, 그리고 3자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함.
- (아프리카 그룹(감비아)) 아프리카 50%의 인구가 여성이며, 그 중 80% 이상이 농촌에 거주하는바, 농촌 여성과 여아의 역량강화를 위해 문해교육 및 공식/비공식 교육, 직업교육 등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무보수 노동 감소를 위한 노동법 개정과 시장경제참여 강화를 지원하는 한편,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를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아울러, 높은 HIV, 말라리아, 모성 사망률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가 요구되는바, 이에 대한 국제사회에 적극적인 지지와 노력을 요청함.
- (EU(불가리아)) 농촌 여성들은 토지권 제한, 경제, 사회적 참여 제약, 젠더기반 폭력 등의 많은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는바, EU는 2017년 성평등의 중요성을 포함한 개발에 대한 합의(European Consensus on Development)를 달성하였으며, 지난해 9월 젠더기반폭력 해결을 위해 UN과 함께 새로운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도출한바, NGO, 국제기구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젠더기반폭력에 대한 액션을 촉구해나갈 예정임.
 - 여성과 남성의 성평등은 인권으로서 강조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개발과 인류의 평화, 안보를 위해 필수적임을 강조함.
- (고령자(older persons) 그룹*(슬로베니아)) 농촌 인구의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바, 노령 인구의 경제적 자원과 정책, 영양, 식량안보 및 역량강화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개입이 필요함. 특히 농촌의 고령 여성을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한바, 이들에 대한 기초 건강 서비스 제공과 적절한 인프라 시설 구축, 성인교육 등이 필요함.

- 고령자 그룹은 농촌 여성과 여아의 성평등과 역량강화에 대한 이행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해나갈 것임.

※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엘살바도르, 케냐, 말레이시아, 멕시코, 파나마, 페루, 카타르, 남아공 등 참여

- **(아랍 그룹(튀니지))** 테러리즘, 이민, 경제악화 등이 아랍 국가의 여성 지위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특히 분쟁 지역의 여성과 여아에 대한 보호가 필요함. 아랍의 환경을 고려한 여성과 여아의 인권 및 역량강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농촌의 여성과 여아를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과 기술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한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특히, 농촌 여성들의 무보수 노동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바, GDP를 측정할 때 무보수 노동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여성의 경제역량 강화를 위한 생산수단의 소유, 기후변화로 인한 생산성 악화 대응, 공적 경제활동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함.

- **(태평양국가 그룹(마셜 아일랜드))** 태평양 제도의 농촌 여성은 기후변화에 매우 취약한바, 이에 대한 전문가 그룹 회의를 통해 SAMOA((군소도서국가) Accelerated Modalities of Action) Pathway”에 대한 이행을 촉구함.

- 농촌 여성의 무보수 노동 감소, 의사결정과정 참여 제고, 성, 재생산 보건과 교육 증진, 농업과 어업 종사 여성에 대한 ICT 접근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임.

- **(CARICOM(가이아나))** Human development report 2016 보고서에 의하면 카리브 지역 여성의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에 참여가 증가하는 등 여성의 역량강화에서 진전을 보이고 있으나, 농촌여성의 43.3%가 빈곤상태에 처해 있는바, 이들에 대한 예산 지원이 필요함.

- 농촌 여성의 빈곤 및 불안정한 고용, 인신매매, 불법 이민, 젠더기반폭력 감소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임.

- **(ASEAN(태국))** 아세안 지역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하는 추세로, 농촌 개발에 있어 성평등 측면을 적극 고려하고자 하며, 농촌 여성을 위한 자원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2. 고위급 상호대화: 북경행동강령 이행 가속화 및 2020년까지 가시적 성과 달성

□ 일시 및 장소: 2018. 3. 13(화), 15:00 - 18:00, 유엔본부 지하 회의장

○ 핵심내용

2020년까지 북경행동강령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이행 사례에 대해 공유함. 본 장관급 상호대화에서는 다음 세 가지 부분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진행함. 1) 2020년까지 북경행동강령의 이행을 위해 정부가 시행한 구체적인 측정가능한 성취와 사례가 무엇인지, 2) 북경행동강령의 이행을 위한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3) 성평등을 주류화하고 여성의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우수사례를 공유함.

○ 상세내용

가. 한국정부 발언 요지(최성지 여성가족부 정책기획관)

- 북경행동강령의 이행을 가속화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모든 정책과 예산에 성평등 관점이 반영되어야 하며, 대한민국은 이를 위한 주요 전략으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임.
- 특히, 성인지 예산 제도의 운영을 통해서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결산과정에서 모두 고려함으로써, 국가 재원이 효과적이고 성 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특정성별영향평가’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여성을 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음.
- 이러한 노력의 결과, 연간 3만 여건의 법령과 사업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성인지 예산의 대상기관, 대상사업 수 및 예산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도입 초기인 2010년 중앙정부 예산의 3.7%에 불과했던 성인지 예산은 2018년 전체 예산의 8%인 약 320억 달러(34.4조원)로 확대되는 등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나. 기타국가 발언 요지

- (마케도니아) 성평등을 주요 정책 과제로 상정하고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바,

특히 성별 임금격차를 완화하고자 최저임금을 재조정하고 있음.

- **(헝가리)** 여성을 위한 일과 가정의 양립에 힘쓰고 있는바, 3년간의 육아휴직을 시행하고 있으며, 보육시스템에 대한 확충을 통해 여성의 경제적 참여를 제고하고자 함. 현재 70%의 대사가 여성이라는 점에서 여성의 정치 참여에도 진전을 이룸.
- **(이란)** 여성부와 보건부, 교육부 간 양자 MOU를 체결함으로써 범부처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2020년까지 북경행동강령 이행을 위해 성별분리통계를 구축하고자 노력 중임.
- **(캐나다)** 'It's never okay'라는 온타리오 전략을 발족하여 성기반 폭력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 중이며,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를 위해 일자리와 시장의 젠더 분석을 실시함. 지방정부에서 40% 이상의 여성 대표성을 성취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인신매매에 대한 인식제고를 통해 인신매매 피해자들의 회복을 돕고 예방을 지원하고 있음.
- **(중국)** 2020년 북경행동강령의 이행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에 힘쓰고 있는바, 2015.9월 여성 지원을 위해 UN Women에 천만불을 기여하고, 농촌 여성에 대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소액자본대출, 보건 지원 등을 시행함.
- **(호주)** 보육 시설에 대한 여성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난민과 장애여성, 고령여성 모두를 고려한 여성 정책을 시행 중임.

제 3일 차 (2018년 3월 14일, 수)

• 일반토의

□ 일시 및 장소: 2018. 3. 14(수), 10:00 -18:00, 유엔본부 본회의장

1. 주요국 발언요지

- (미국) 미국은 국토의 70% 이상이 농촌이며, 46백만명이 농촌에서 거주하고 있어 농촌의 공공교육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트럼프 행정부는 ‘범부처 농촌 및 농업 활성화 TF’를 설치하여, 농업생산성 향상 및 농촌 교육, 기술 증진을 위한 100개 이상 권고를 발표하였으며, 농촌의 교통, 초고속 인터넷, 수자원, 에너지 등 인프라 구축 확대, 여성의 첨단기술 영역 취업 확대 지원, 가정 내 폭력을 포함한 젠더기반폭력 관련 사법 및 법집행 강화를 위해 예산지원 확대 등을 시행한바 있음.
 - 아울러, 미국 정부는 지난해 G20 정상회의시 개도국 여성의 교육 및 창업 지원을 위한 WEFI(Women Entrepreneurs Finance Initiative)를 창설하여, 13개국과 함께 여성의 역량강화를 지원 중임.
- (일본) 일본 정부는 농촌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해 가족관리계획을 추진 중임. 성평등 작업환경(gender-equal working condition) 구축을 위해 노력 중이며, 농촌여성의 날을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음. 일본 정부는 아프리카 농촌사회를 대상으로 젠더 고정관념과 성역할에 대한 성인지 교육 실시, 케냐 농촌 여성의 생산기술지원 등 개발도상국의 농촌 여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 중임.
- (중국) 최근 젠더평가에 대한 정책 및 농촌 활성화 전략을 발표하였으며, 중국 내 농촌 여성의 빈곤율 감소에 성과를 거둔바, 2050년까지 농촌인구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국제개발협력력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여성 역량 강화에 기여해 나갈 예정임.
- (러시아) 러시아의 ‘2017-2022 국가개발정책’은 농촌 여성을 주요 이슈로 포함하고 있으며, 2016년 푸틴 대통령의 이니셔티브로 농촌여성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한바, 농촌개발과 농촌의 시장 활성화를 위해 교육시설 제공, 인프라 구축 등을 시행하고 있음.
- (터키) 지난 15년간 여성들의 리더십 강화를 위해 노력해 온바, 여성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향후 농촌 여성들의 안전을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2018-2023 전략 발표 예정임.

- **(스페인)** 농촌 여성들의 사회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 온바, 특히 농촌 여성의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여 성과를 거두었으며, 토지 및 자본 소유권 보장, 농촌의 기술혁신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농촌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가 심각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바, 스페인은 2004년 채택된 젠더기반폭력 철폐법을 토대로 농촌의 젠더기반폭력 예방 및 해결을 위해 노력 중임.
- **(페루)** 젠더기반폭력 예방 및 농촌의 가정폭력과 젠더기반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 중인바, 특히 원주민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립하여 지원 중이며, 이들이 산림자원(forest caring) 관리 관련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3709 법'을 상정하여 양성평등 제고를 위해 힘쓰고 있으며, 향후 2019-2023 양성평등계획을 발표할 예정임.
- **(뉴질랜드)** 농촌여성은 지역사회개발과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바, 뉴질랜드 정부는 매년 10억 달러를 농촌 개발을 위해 지원하고 있으며, 농촌 여성들이 기후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중임.
- **(시에라리온)** '거버넌스, 교육, 젠더기반폭력, 여성의 역량강화'는 시에라리온 정부의 주요 중점 분야인바, 농촌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해 '농촌 여성을 위한 네트워크'를 출범하였으며, 2015년에는 국가 토지 정책을 발족하여, 여성에 대한 소유권을 보장함.
- **(호주)** 여성은 국가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주체이나, 농촌 여성들은 자연재해 및 젠더기반폭력에 취약한바, 농촌 여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성폭력 예방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에콰도르)** 2017-2021 국가개발계획(national development plan)을 통해 여성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는바, 여성의 임금격차 개선을 위해 노력하며, 여성 기업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2018.2월 젠더기반폭력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시작하였으며, 농촌 여성의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세네갈)** 세네갈 정부는 2017년부터 성주류화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국경 지역의 여성 보호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2012-2016년

간 농촌 여성기업가를 위해 60억 프랑을 지원하였으며, 여성의 ICT 기술역량 강화를 위해서 ‘2016-2025 디지털 전략’을 도입함.

- **(독일)** 독일은 90%가 농촌으로 이루어져 있어 농촌 여성과 도시와 농촌의 균등한 발전에 대한 이슈는 독일 정부의 주요 과제인바, 특히 농촌 여성의 역량강화와 농촌 고령인구에 대한 지원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개발도상국 농촌의 여성과 여아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2. 국제기구 및 NGOs

- **(국제개발법기구, IDLO)** 농촌 여성은 자연자원을 보존하고 경작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 현장기반 국제기구의 경험을 기반으로 IDLO는 농촌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토지소유권을 보장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함. 법과 정책으로 여성의 토지소유권을 보장하여도, 현장에서는 여성의 권리가 배제되는 경우가 많음. 또한 조혼과 원치 않는 결혼을 방지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함. SDGs의 성취를 위해서는 농촌 여성과 여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수적임.
- **(아랍국가연맹)** 2017년 3월 아랍 정상회담을 통해 성평등으로 논의한 바 있는 만큼 아랍 국가는 성평등에 주목하고 있음.
- **(세계의원 연맹)** 본 연맹은 농촌여성의 인권과 역량강화를 위해 최근 회의를 개최함. 의원으로서 농촌여성의 도전과제들과 현실을 반영한 법과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대면회의뿐만 아니라 휴대폰을 통한 온라인회의를 통해 여성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함.
- **(국제노동기구)** 국제노동기구는 올해 6월 농촌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철폐하기 위한 논의를 갖고자 함. 농촌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양질의 직업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본 기구의 ‘decent work agenda’와도 맥락을 같이 함.

제 4일 차 (2018년 3월 15일, 목)

• 일반토의

□ 일시 및 장소: 2018. 3. 15(목), 10:00 - 13:00, 유엔본부 본회의장

1. 우리나라 발언 요지(조태열 주유엔대표부 대사)

- 그간 여권 신장을 위해 많은 진전이 있었으나, 농촌 여성 및 여아는 여전히 불평등과 경제사회적 기회 제한에 직면해 있는바, 이들에 대한 지원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가장 소외된 사람들을 먼저 지원하는 SDG 정신의 달성을 위해 필수적임.
- 농촌 여성 및 여아에 대한 지원은 한국의 정책 우선순위에 있는바, ▲ 법적/제도적 측면에서는 5년 마다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여성 농업인의 지위 인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 농촌여성의 복지 향상을 위해 여성농업인센터, 농업안전보건센터 및 농어촌여성 새로일하기센터 등을 운영하여 보육, 보건지원 및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 농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하여 농촌 여성의 의사결정 참여율을 제고하는 한편 ▲ 장애인 및 이주여성 등의 특수한 고충 해소를 위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아울러, 여성 직업능력개발센터 구축 등 개도국, 특히 취약국 내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개발원조도 적극 시행 중임.
- ‘하나님은 모든 곳에 동시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니를 창조했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여성의 역량 강화를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음.

2. 주요국 발언요지

- (포르투갈) 포르투갈 인구의 52%가 농촌에 거주하나, 농촌 여성의 교육접근성과 경제참여가 제한되어 있는바, 농촌개발을 위해 '소규모 가족농(small-scale family agriculture)'을 승인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공적 영역 관리자 레벨 인사 중 33% 이상을 여성으로 구성되도록 법안을 통과시켜 여성의 정치적 참여를 장려하고 있음.
-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인구의 69%가 농촌에 거주하며, 여성은 농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최근 조사에 의하면, 농촌 여성은 도시여성보다 낮은 임금을 받으며 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상황임. 오스트리아 정부는 청년층의 농촌 거주를 확대를 위한 대중교통과 사회 인프라를 구축에 힘쓰고 있음.

- **(리투아니아)** 리투아니아 정부는 여성의 무임금 노동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며 이에 대한 대응을 마련 중인바, 농촌 여성의 경제적 참여와 창업을 지원하고 있음.
- **(카자흐스탄)**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고등교육 접근성과 농촌개발을 위한 소규모 금융, 저소득노동자를 위한 세금 감면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UN Women과 함께 젠더기반폭력 대응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노력중임.
- **(스웨덴)** 성평등은 인권과 사회정의를 위해 중요한 이슈로서, 스웨덴 정부는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와 보육시설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노력 중임.
- **(UAE)** 대학교육의 성평등을 제고하기 위해 안전한 대중교통을 제공하고, 여성 친화적인 직업 환경 구축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정부 관리자의 29%가 여성으로서, 여성의 리더십 제고와 정치적 참여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에 주력하고 있는바, 여성의 고등교육 참여율은 56%임. 디지털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E-government 서비스를 구축하고, 직업여성을 지원하기 위해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남녀 성별 임금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 중임.
- **(필리핀)** 농촌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해 예산의 5% 이상을 성평등 분야에 할당 하였으며, 농촌거주자들을 위해 2,100개의 기술센터를 설립하고, 여성의 STEM 분야 진출을 장려하고 있음.
- **(이스라엘)** 이스라엘 정부는 개발도상국의 농촌 여성을 위해 보건 서비스, 정책 자문, 예산 지원 등을 제공 중이며, 성별 임금격차 축소, 성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 중임.
- **(파키스탄)** 파키스탄 정부는 SDGs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연방과 지방 수준에서의 SDGs 이행기구를 설치함. 파키스탄 정부의 ‘국가개발 2025’은 성평등을 주요 이슈로 설정하여, 여성의 정치 및 경제적 참여를 장려하고 있으며, 농촌 여성을 위한 빈곤완화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 **(이란)** 이란 정부는 농촌개발계획 아래 농촌 여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여성의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의 고등교육 접근성 제고 및 관리자

레벨에서 여성채용비율 30% 이상을 목표로 노력 중임.

- **(슬로바키아)** 여성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에게 34주의 75% 유급 육아휴직을 지원하고 있으며, 남성에게는 28주 유급 육아휴직을 보장한바, 이를 통해 남성의 육아휴직이 2배 증가함. 또한 고령 여성에 대한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국가 프로젝트를 추진 중임.
- **(베트남)** 2011-2020 성평등 계획은 농촌여성에 대한 이슈를 포함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총리 주도로 젠더기반폭력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으며, 농촌 여성의 빈곤완화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 중임.
- **(인도네시아)** 2014년 농촌 여성을 위한 법을 채택하였으며,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해 여성 기업가 교육, 자금, 디지털 역량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음.
- **(네팔)** 75% 여성이 농업에 종사하지만 대부분의 무보수 노동으로 인해 적절한 임금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며, 농촌 여성의 교육, 기술, 보건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인바, 동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음.
- **(동티모르)** 동티모르의 2030년까지 국가계획에 성평등 이슈가 포함되어 있으며, 2017년 성평등 위원회를 설립하고, 의회 여성 할당제를 도입하여 38%의 여성 의원을 달성하였음.

제 5일 차 (2018년 3월 16일, 금)

- 전문가 패널 토의
- 주유엔대표부 인권팀과 정책협력 네트워크

1. 전문가 패널 토의 1: SDG 달성에 있어 농촌여성의 토지 접근권 및 소유권 보장의 역할

□ 일시 및 장소: 2018. 3. 16(금), 10:00 -13:00, 유엔본부 지하 회의장

○ 핵심내용

본 세션에서는 SDG 달성을 위한 여성의 토지권 및 소유권 보장의 역할을 논의한 바, 여성의 토지권 및 소유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이해 관계자(정부, 시민 사회 단체, 지역 사회 지도자, 여성 단체, 성평등 옹호 단체 및 국제기구)의 역할, 농촌 여성의 토지권 및 소유권을 촉진하고 보호하는 효과적인 국가 법률 및 정책 사례, SDG 달성을 위한 농촌 여성의 토지권 및 소유권 사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

○ 패널 발언 요지

- o CEDAW 이행 관련 농촌 여성 토지권의 역할(Naela Gabr 여성차별철폐위원회 (CEDAW) 위원)
 - CEDAW는 농촌여성에 관심을 갖게 하는데 기여하였으며, 농촌 여성의 토지접근성과 SDGs의 달성은 매우 분명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 여성의 낮은 토지소유율(20% 미만)과 소수의 국가들만이 여성의 토지소유를 보장한다는 점에 대해 주목해야 함.
 - 이를 위해 정부가 법과 정책을 통해 농촌 여성의 정책 의사결정참여를 제고해야 하는바, 정부는 농촌여성의 토지소유율, 농촌여성 지원 비율, 농촌여성의 정치적 참여율 제고를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함. NGO는 여성 인식을 제고하고, 지역사회 리더는 성별 고정관념 및 조혼 등 악습을 타파하고, 국제사회는 적절한 개입이 잘 수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o 여성의 토지권리 제한에 대한 법과 현실(Tzili Mor 성평등 및 국제 행동 네트워크 이사회 대표)
 - 국제적으로 농촌의 토지권에 대한 공동의 합의와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하

며, 여성 토지보유권에 관한 법과 실제간 간극이 있는바, 60%의 국가는 여성의 토지보유권 차별에 대해 적절한 논의를 하고있지 않음.

- 토지에 대한 개념적 논의도 필요한바, 등록되지 않은 지역사회 토지에 대한 여성의 보유권에 대한 인식제고가 필요함. 미국의 경우, 원주민의 토지 보유권에 대해 최근 소정의 진전을 이루었으나, 여전히 농촌 여성에 대한 토지권이 제한적임.

o 원주민 여성의 토지 보유권(Yolanda Teran Maigua 교육 문화 조정관,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생물 다양성 원주민 여성 네트워크)

- SDGs 내에는 17개의 포괄적인 목표가 있지만 어떠한 목표도 원주민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은바, 원주민 농촌 여성은 본인의 인권과 토지 보유권에 대해 알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응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농촌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와 여성그룹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함.

o 여성과 토지에 대한 법률문제 접근(Rea Abada Chiongson 국제개발법기구 젠더 수석 법률 고문)

- 여성의 토지권에 대한 법률문제에는 많은 현실적 제약이 존재하는바, 여성의 토지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결혼증서, 배우자의 동의, 국적 등을 증빙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각 지역사회에 대한 관습법도 고려해야 함. 농촌여성의 토지권 강화를 위해서는 이들의 법적 역량강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들의 권리에 대한 법적 교육이 필요함.

o 정책 결정을 위한 여성의 토지권 데이터 접근성 향상(Robert Ndugwa, UN-Habitat 연구 및 역량개발부 글로벌 도시 관측소 책임자)

- SDGs 내 234 지표 중 6개 지표가 토지권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이를 측정할 수 있는 국제수준 데이터가 잘 구축되어있지 않은 실정인바,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측정하는 것은 각국의 역할이자 의무라는 것을 강조함.
- 특히 토지권을 비롯한 대부분의 데이터는 도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바, 농촌에 대한 데이터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토지권에 대한 다양한 개념이 존재함을 고려하여 토지권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 구축 역

시 필요함.

2. 전문가 패널 토의 2 : 성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 성과 측정을 위한 혁신적인 데이터 접근법

□ 일시 및 장소: 2018. 3. 16(금), 15:00 - 18:00, 유엔본부 지하 회의장

○ 핵심내용

본 패널 토의에서는 2003년 제 47차 회기에서 합의결론(agreed conclusion)으로 채택된 의제인 “여성의 언론·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참여와 접근(검토 의제)”에 대해 논의함. 본 토의에서는 1) 여성 및 여아를 위한 SDGs의 효과적인 모니터링과 이행을 위한 성별 데이터 격차 감소, 빅 데이터의 역할, 2) 글로벌, 지역 및 국가의 성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이행 및 모니터링에서 정보통신기술 (ICT) 활용의 기회와 과제에 대해 논의함.

○ 패널 발언 요지

- SDG의 이행 모니터링 관련 빅데이터의 역할(Steve Macfeely UNCTAD 통계국 대표)
 - SDGs 내 지표가 232개에 달하는바, 지표 내 데이터의 구축 정도에 따라 Tier 1, Tier 2, Tier 3로 구분할 때, 지표 측정이 가능한 방법이 충실히 고안되었다고 분류된 Tier 1의 지표는 약 30%에 불과함.
 - 최근 많은 기기(핸드폰, 신용카드, 자동차 등)를 통해 빅 데이터가 양산되고 있으나, 유용한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통계적 노력이 필요하며, 빅 데이터 활용에 있어 윤리적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빅데이터와 국가 통계 시스템의 현대화: 콜롬비아 사례(Jaime Sebastian Lobo Tovar 콜롬비아 통계청 젠더 통계 위원)
 - 빅데이터는 젠더분석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는바,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를 성주류화 하는 것이 필요함. 그 예로 콜롬비아에서 성기반 폭력에 대한 피해 현황을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 수집하여 젠더분석을 실시한 사례를 공유함.
- 성평등과 여성 역량강화를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사용의 기회와 도전

(Nandini Chami, IT for Change 선임연구원)

- SDGs 내 53개의 지표에 대해 측정가능한 방법과 도구가 부재한 상황인바, 성평등을 위한 데이터 역시 부재한 경우가 많음. 빅데이터의 한계로 샘플링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바,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서는 대표성의 문제를 고려해야 함.
- o 안전하고 개방적이며 성인지적 데이터의 필요성-아프리카의 사례(Nnenna Nwakanma, World Wide Web Foundation 수석 정책관리자)
 - 소득이 낮은 농촌의 여성일수록 온라인 세계에 참여할 가능성이 낮으며, 많은 정보에서 배제됨. 데이터의 REACT(Rights, Education, Access, Content, Target), 즉, 정보에 대한 권리(Rights), 정보에 대해 교육받을 권리(Education), 정보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권리(Access), 정보의 내용 적절성(Content), 정보의 타겟 적절성(Target)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o 성평등과 여성과 여아의 역량강화를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와 국가 및 국가 행위자의 역할(Irena Krizman, ISI 통계 역량강화 위원회 공동 의장)
 - 사적인 영역에서부터 생산되는 데이터에 대한 윤리적 문제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는바, EU가 ‘Data protection regulation’에 대해 합의한 것과 같이 통계의 수집, 생산, 보급의 문제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를 비롯한 윤리적 이슈를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함.
 - 개발도상국의 경우 젠더 데이터에 대한 국가적 우선순위가 낮아 젠더통계가 구축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나, 데이터 구축은 성평등 정책에 영향을 미치므로, 젠더 데이터 구축에 대한 관심을 촉구함.

- 제 62차 여성지위위원회에서는 ‘농촌 여성과 여아의 성평등 및 역량강화’를 주제로 각국 정부들이 자국 내 농촌 여성과 여아의 현황 및 지원정책에 대해 소개함. 참가국들은 농촌 여성 및 여아들이 도시여성에게 비해서 더 심한 불평등과 사회경제적 기회의 제한에 직면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들에 대한 지원이 SDG 이행에 있어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함. 특히 구체적인 과제로 농촌 여성에 대한 젠더기반 폭력(Gender-based Violence) 철폐, 교육 및 의료 등 사회서비스 접근성 제고, 무보수 노동에 대한 지원 고려 및 경제참여 확대, 토지 소유권 보장 등을 강조하였음.
- 농촌 여성과 여아에 대한 이슈는 기존의 국제사회 논의에서 간과되었던 이슈이나 SDGs의 달성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과제임을 확인함. 특히 개발도상국과 취약국 농촌 여성의 경우 최근 심화되고 있는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에 더욱 취약하여 이에 대한 국내외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함. 이에 대해 선진 공여국의 다양한 국제개발협력 사례가 공유됨. 이러한 국제사회의 필요와 동향을 고려하여, 본원 역시 개발도상국 농촌 여성과 여아에 대한 국제개발협력 연구 및 사업을 발굴하고 지속할 필요성이 있음.
- 본 회의는 2030년까지 SDGs달성과 2020년까지 북경행동강령의 가시적 성과도출을 위해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이행현황 모니터링 및 분석의 필요성에 대해 확인함. 특히 전문가 패널토의를 통해 논의된 성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를 측정하기 위한 데이터 구축 및 활용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이에 대한 본원의 역할이 중요함을 확인함.
- 내용적 측면 이외에도 본 회의 참석은 본원의 국제교류 네트워킹 강화에 기여함. 본원 연구자와 주유엔대표부 차석대사 및 인권팀(이주일 참사관, 황유실 1등서기관, 김흔진 1등서기관)과의 정책 협의회를 통해 향후 본원과의 국제 젠더의제 및 이슈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교류협력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또한 여성가족부(최성지 정책기획관, 이진희 국제협력담당관실 사무관) 및 UN Women(여성가족부 파견 젠더 담당 채명숙 과장)과의 정책협의회를 통해 상호 향후 협력 방안 모색 및 협력강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함.

붙임자료

1. 여성가족부 요청 의제검토의견서 1부.
2. 제 62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합의결론 영문 1부. 끝.